

‘쌀값 고공행진’

정부, 비축쌀 더 쏜다

정부가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 공공비축미를 시중에 더 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쌀 재고 추이와 1차 정 부양곡 공매물량(10만t)의 낙찰 업체 인수 진행 상황을 살핀 후 2차 공매를 검토하기로 했다.

쌀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산지 쌀값은 지난 3월말 산물 버(건조하지 않고 수확한 상태 그대로 사들인 버) 8만2000t을 시중에 쏜 뒤 전년 대비 0.1% 수준에서 쌀값 상승률을 유지해 왔지만 5월부터 0.3%로 오르더니 6월 들어서는 0.5% 된 17만 4096원(80kg 기준)을 기록했다. 7월 들어 17만5784원까지 뛰었다.

현재의 산지 쌀값은 평년 기준으로 따지면 12%나 오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가공업체의 원료곡 보유 수준과 예상 소비량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높은 가격대에서 강보합세가 전망된다며 “얼마나 더 물량을 풀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늘어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 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거세우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돼지고기 출하월령을 단축해 단기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7~8월중 뒷다리살 등 비선호 부위의 소비 촉진 캠페인도 벌인다.

오는 18일부터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원산지 일제 단속도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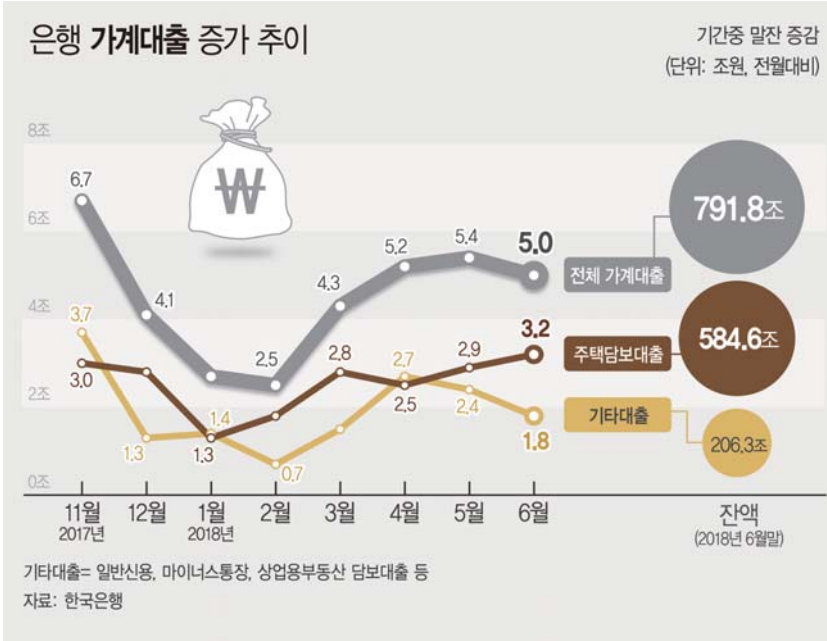
반면 신란계(알 낳는 닭) 미릿 수 증가 영향으로 가격 약세가 예상되는 계란의 적정 가격 유도를 위해 소비 촉진 행사를 펴기로 했다.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신란계 사육 미릿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시세 동향과 생산 실적 정보도 적극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쌀과 소·돼지고기, 계란을 제외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상순 농축산물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0.7%(농산물 1.6%, 축산물 -0.2%) 높다. 6월의 2.1%보다 상승 폭이 축소돼 안정된 흐름이다.

# 다시 고개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가세는 ‘주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주담대 3.2조 ↑...증가액 7개월 만에 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 나며 다시 고개를 든 모습을 보였다. 가파르게 불어났던 신용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11일 한국은행의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예금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84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5월 증가액(2.39000

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1월(3조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폭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개별 차주 수요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신용대출과 미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8000억원 늘어 전월(2조4000억원)보다 둔화된

증가세를 나타냈다.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연휴로 소비성 자금 등의 수요가 늘었다가 지난달 다소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는 지난 3월(1조5000억원) 이후 석달 만에 가장 낮은 증가 규모다.

이에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잔액은 791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4조3000억원)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6월 기준으로는 지난 2014년 6월(3조1000억원) 이후 증가액이 가장 낮다.

은행 기업대출은 806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000억원 줄었다. 분기말 일시상환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대출이 3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으나 5월(3조6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꺾였다.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과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 대출 중 지역업체 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원 늘어난 302조1000억원으로 전월(2조1000억원)에 이어 2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뉴시스



“뒤에서 추월한건데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억울함 풀릴까

#1.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A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했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B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B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는 A와 B를 쌍방과실로 판단했다.

#2. 뒤 따라 오던 차량 C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D차를 들이막아 사고가 발생했다. D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 둘 모두 쌍방과실로 봤다.

이처럼 회피할 수 없어 사고를 당했음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억울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을 따지는데, 그 기준에 법적 측면만이 강조돼 정작 소비자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보험 과실비를 분정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정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일반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따르면 일반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전체 57개 항목 중 9개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해자가 피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내년 1분기 시행 예정

블랙박스 보편·과실비율 분정 '증가'...일반과실 적용 확대해

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 비율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가·피해자를 나누고 각 보험사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가령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대 5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한 뒤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식이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쳐 중요하다.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사고 상황 확인이 용이해져, 이 같은 과실비율 분정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지난 2013년 398건에서 지난해 3159건으로 약 10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법적 측면이 강조돼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해운전지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보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도 신설한다. 최근 교통환경과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정비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 도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도도 높인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올 4분기에 꾸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일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같은 보험사 가입한 이들 사이에 벌어진 사고도 손보험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한다.

## 짧은감 ‘아이스 홍시’ 변신...전남도·산림조합 시제품 개발

전남도는 짧은감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신규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아이스 홍시’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짧은감은 소독작물로 인식된 2008년 이후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으나, 소비 가격은 2008년 1kg당 2000 원이었던 것이 불기가 상승한 2017년 1kg당 1000원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확량이 평년보다 13%가 많아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평년보다 가격이 28%나 낮아 생산 인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지역 짧은감 생산 유통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비층 확보를 위해 짧은감의 짧은 맛을 없앤 ‘탈삼감’과 ‘아이스 홍시’ 시제품을 개발했다.

아이스홍시는 유통을 배제한 탈삼감 가공 친환경 특허 기술 개발자가 참여해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자체 개발 브랜드 특화된 디자인 포장으로 관련 시장 진입을 시도한다.

‘탈삼감’과 ‘아이스홍시’ 개발로 현재 짧은감이 가공 판매되는 형식인 생감, 꽃감 연시, 감말랭이 등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비층 확대가 기대된다.

또 보관 기간 연장 등으로 실제 짧은감 재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짧은감 수급 안정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생산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짧은감 가공 공장 설치 등 다양한 육성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영암, 순천, 장



아이스 홍시. 전남도는 짧은감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신규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아이스 홍시’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 광양 등에서 짧은감을 재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연간 3만 4000t을 생산해 전국(18만 8000t)의 18%를 차지, 경북(9만 2000t, 1080억 원)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